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8. 24.(수) 14:00
- 장 소 :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교육장(4층)
- 참석인원 : 총 28명
  - 대표협의체 위원 : 34명중 22명 참석(64.7%)
    - ▶ 참석위원 : 22명
      - 윤학수, 이상균, 황재경, 김윤희, 김명주, 김화자, 박성희, 성낙훈, 송은경, 윤명옥, 이선인, 이수경, 이종성, 이지희, 장정희, 정용수, 정유진, 정일용(원 장), 정일용(병원장), 최병준, 최용진, 허승연.
    - ▶ 미참석위원 : 12명
      - 이재준, 문상철, 문재순, 박영도, 안소영, 안효주, 이용범, 이은환, 이해철, 장성은, 주경희, 하경희.
  -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 김범수.
  - 협의체 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이주미, 신다희, 김유림.

## □ 회의안건

### 1. 보고사항

- 상반기 평가 및 향후 계획
-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위원 변동사항

### 2. 안전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변경(안)
-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 □ 회의결과

### 개회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사 회 자 : 2022년 제3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개회를 안내하고 식순에 의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함.

### 위촉장 수여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 2022년 8월 17일자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추천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님, 7월 1일자 수원시 인사이동으로 성낙훈 장안보건소장님, 이상균 복지여성국장님이 새로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심.

이 상 군 : 위촉직 윤명옥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함.

사 회 자 :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자 22명을 소개함.

##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위 원 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6항에 의거하여 대표협의체 위원 34명 중 22명이 참석하시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회를 선언함.

사 회 자 :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이후 회의 주재를 요함.

위 원 장 :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의원과 새로 위촉되신 윤명옥 위원, 성낙훈 위원에게 인사와 더불어 이상균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를 요함.

## 보 고 사 항

위 원 장 : 위원장 인사후 식순에 의거하여 보고사항 진행 요함.

김 윤 희 : 보고사항 ‘2022년 상반기 평가 및 향후계획’, ‘제5기 수원시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사항’, ‘위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함.

위 원 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들의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최 병 준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초기에 6대 전략에 환경영역이 있었는데 회의자료의 6대 전략에는 빠져있음에 대하여 질의함.

사 회 자 : 환경은 건강영역으로 포함되어 수정되었음을 답변함.

위 원 장 :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모 두 : 의견 없음.

위 원 장 : 의견이나 질문사항 없으면 안전심의를 진행하겠음.

## 안건심의 1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 위 원 장 : 첫 번째 안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를 상정함.  
수원시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부임한 박재현 복지협력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중요한 시업무로 참여를 하지 못하여 대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사 회 자 :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 관련 사무국 이주미 간사에게 보충 설명을 요함.
- 이 주 미 : 심사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요함.
- 이 선 인 : 금일 선정되신 후보자는 외부추천이사로 바로 활동하는지 질의함.
- 이 주 미 : 금일 심사는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고, 심사결과 후보자로 적격판정이 되면 후보군으로 관리되며, 향후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천요청시 후보군 내에서 추천하게 됨.
- 이 선 인 : 기준 점수 70점 이하는 부적격인지 질의함.
- 이 주 미 : 그렇다고 답변함.
- 위 원 장 :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 모 두 : 의견 없음.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5~10분 정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요하고 심사점수를 취합하는 동안 두 번째 안건을 처리토록 함.

## 안건심의 2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변경(안)

- 위 원 장 : 두 번째 안건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변경(안)’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사 회 자 :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함.
- 위 원 장 : 설명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이 지 회 : 회의자료 44쪽, 11번 ‘성평등 실천 여성 권리보장’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이 40% 정도 감액이 2022년 확정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연속폭력 방지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실태조사가 실시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도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설명을 요함.

사 회 자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당시 예산은 2021년도 기준으로 금일 변경사항은 다시 2022년 예산이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한 사항임. 회의자료 53쪽에서 당초 성과목표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와 여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이 지 회 : 변경내용을 봤을 때 당초와 변경의 사유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미흡하리라 판단되고, 예산 측면에서 전체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떤 사업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 회 자 : 의견 주신 사항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 종 성 : 노인 인권과 돌봄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고령친화도시 구현 8번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인권 강화 사업 추진의 목표가 성과지표라 생각함. 인권 교육이 70명에서 8천 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물론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좋은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 이유에 대해 질의함.

사 회 자 :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노인 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자로 전화되어 목표를 변경한 사항임.

이 종 성 : 성과목표가 크게 변경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함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사 회 자 : 인권교육은 비예산이지만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대상자가 늘었다고 추진함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함.

이 종 성 : 이해했음.

위 원 장 :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모 두 : 의견 없음.

위 원 장 :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검토 바라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 안건심의 3 :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위 원 장 : 세 번째 안건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사 회 자 :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함.

위 원 장 : 설명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모 두 : 의견없음.

위 원 장 :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 사업에 대해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많이 약화되고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고,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 또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좀 강화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좀 더 이 사업이 강화되었으면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좀 더 충실하게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

위 원 장 :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모 두 : 의견 없음.

위 원 장 :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검토 바라며,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 기타 논의 사항

위 원 장 : 금일 안전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살핍과 세부적인 우리의 관심에 대하여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의견들을 의제화하여 5기 계획에는 담아 내지 못하면 2023년 연차별 계획 수립시 검토하고자 함.

이 상 균 :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대하여 두 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음. 대통령 아침 기자단 회의 때 세 모녀 사건이 언급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회의와 복지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고,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가 개최 될 예정임.

바로 이어서 각 시도별로 시군 간에 복지국장 간담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예상됨.

수원시에서는 몇가지 대안으로 대부업체의 연체자에 대한 공유와 보험금 등 제3자가 압류할 경우 보험사에도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법, 병원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재방문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언론사 신문과 지하철 광고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한다던가, 다세대주택 등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음.

또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동협의체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듦. 이외에 여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우리시 자체 대책 수립도 하겠지만 경기도 회의 시 제안을 하고자 함.

이 선 인 :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곳으로 상담을 통하여 불법 사채이건 일반적인 채무 문제든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가

지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무료로 파산세도나 채무조정제도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 일 용 :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크다고 생각함.

이 사건을 우리가 눈 감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곧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국가가 해주고 제도가 해준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가 아무리 꼼꼼하더라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챙기는 것은 불가능함.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

앞으로는 마을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좀 발굴되면 좋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유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봄.

김 윤 희 : 수원시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

이번에 보도를 보면 세 모녀가 월 1만 원밖에 안 되는 건보료인데도 16개월이 밀렸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5만원 미만 건보료를 미납 하시는 분들을 생계형 체납자고 하는데, 그분들의 관리를 건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수원시와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위 원 장 : 좋은 의견임.

사회복지 서비스나 제도는 정말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찾아가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구조임.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든 발굴하고 찾아내서 자원 연계하고자 노력을 하고 또 복지 전달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면서 많이 보완하고자 하였음. 그럼에도 이번 아타까운 사항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더욱 각 동의 기능을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부여를 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됨.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이분들이 그런 강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화 자 : 예전에는 지역 연대가 있어서 우리 이웃을 잘 살피고 도왔었는데 지역 연대만 잘되면 해결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음. 그리고 공공요금 미납 독촉장을 보낼 때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상담을 해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든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의논해 보라는 정보가 함께 안내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 선 인 : 공공요금 고지서에 이런 홍보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차원이나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중심이 돼서 시행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황 재 경 : 고지서 뿐만아니라 지금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명 배달 플랫폼에 이러한 정보를 홍보하는 방안도 좋겠음.

복지 현장에서 촘촘한 복지라는 것과 또 주민이 서로 돌보는 이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굉장히 딜레마가 있음.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개인의 삶을 우리 사회가 촘촘하게 돌본다고 하는 것이 거시적인 보편적 복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의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약간 중·거시적인 어떤 보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라고 생각함.

두 번째는 기층으로 내려갔을 때 언론이나 이 사회가 제도나 공공에서 어떤 개인의 삶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논리로 극과 극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음.

그런데 지금 보편적 복지 서비스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틈새들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

어디 동, 어디 시가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는 콘셉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도 사실 촘촘한 안녕 확인 제도는 필요할 것 같음.

주민자치회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관련 자원들을 촘촘한 구조로 만들어서 가정 방문하는 과업 자체를 루틴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위 원 장 : 정말 이렇게 채무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극단적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알려 나가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함.  
더불어 아파트 공공요금이나 다 관리비로 통합돼서들 보통 나오는데 과도하게 장기간 연체되는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면 좋겠음.

위 원 장 :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의견을 요함.

모 두 : 의견없음.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인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후보자로 신청한 ‘김정선’, ‘김묘연’, ‘김민찬’, ‘최병문’, ‘홍원자’ 5명 모두 심사점수 70점이상으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적격’ 판정 되었음.

위 원 장 : 동의를 구함.

모 두 : 동의함.

위 원 장 : 제안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마치고자 함.

## ※ 2022년 제3차 대표협의체회의 의결사항

### <안건심의>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 ‘김정선’, ‘김묘연’, ‘김민찬’, ‘최병음’, ‘홍원자’ 이상 5명  
‘적격’ 판정
2.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변경(안)  
: 원안대로 의결
3.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4. 기타 논의사항  
: 제안된 내용들이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함.

### □ 관련사진

